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경축이동
제34권 32호(가혜) 2014.7.6

[묵상]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교우들 보아라.

우리 벗아! 생각하고 생각할지이다.

~~

부디 서로 우애를 잊지 말고 돕고 아울러 주 우리를 붙잡히 여기사
환난을 앓기까지 기다리라. 혹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부디 삼가고
극진히 조심하여 위주 광영하고 조심을 배로 더하고 더하여라.

여기 있는 자 이십 인은 아직 주은으로 잘 지내니 설혹 죽은 후라도
너희가 그 사람들의 가족들을 부디 잊지를 말라.

할 말이 무궁한들 어찌 지필로 다하리, 그친다

~~

우리는 미구에 전장에 나아갈 터이니 부디 착실히 닦아,
천국에 가 만나자. 마음으로 사랑하여 잊지 못하는 신자들에게,
너희 이런 난시를 당하여 부디 마음을 허실히 먹지 말고 주야로
주은을 빌어, 삼구를 대적하고 군난을 참아 받아, 위주 광영하고
여등의 영혼 대사를 경영하라.

~~

할 말이 무수하되, 거처가 타당치 못하여 못한다.

모든 신자들은 천국에 만나 영원히 누리기를 간절히 바란다.

내 입으로 너희 입에 대여 사랑을 친구하노라. - 김 안드레아 -
(성 김대건신부님의 옥중서간)

-오-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월요일	새벽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렉시오 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아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6:00 오후 7:0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쌍수달 4째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오전 9:30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오후 1:00 • 꾸리아 오후 1:45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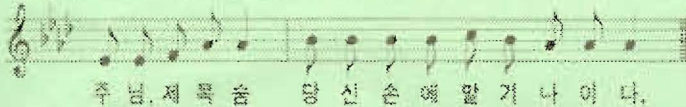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 메라 샌들맨
특전미사	(생) 홍석인 체칠리아
주 일 낮미사	(연) 이경용 야고보, 이윤조 클라라, 이현호 요한, 고준희 제임스, 김혜옥 안나, 박무성, 주영석 베드로, 김인주 미카엘 & 이달자 마리아, 이미란 마리아 & 양기자 올리안나, 송근섭 발렌티노 (생) 김지훈 대건안드레아, 정정현 베네딕다 & 박무순 안나, 서성용 베드로 & 서용숙 에스텔, 최석원 클레멘스, 민석준 토마스 & 민영준 마르코, 정애나 세라피나 & 정린다 켈마 & 정엘리스 클라라, 오 마우라 수녀, 오창근 베드로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역대기 하권(2 Chronicles) 24,18-22

화답송 ○주님,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채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채이시니,
당신 이름 위하여 저를 이끌어 주소서.○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진실하신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오로지 주님만 믿나이다.
당신 자애로 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당신 앞 피신처에 그들을 감추시어,
사람들의 음모에서 구해 내소서.○

제 2독서 로마서(Romans) 5,1-5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 음 마태오(Matthew) 10,17-22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364	108	108
봉헌	269	269	268
성체	주품예	282	291
파견	339	345	345

올바른 성모신심

제5장 올바른 성모 공경

부록 2

성모 찬미가 '아카티스토스' <1335-1348>

(이 찬미가는 원문에 충실히 번역하였기에 기도문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23(23번에서 계속)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내 영혼을 위한 구원이십니다.

기뻐하십시오. 오, 동정녀시여, 신부시여!"

24 오, 어머니, 모든 찬미 노래가 당신께 합당합니다.

당신은 거룩하신 말씀께 생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거룩한 이들
가운데 가장 거룩한 분에게.

이제 드리는 봉헌을 받아 주시고

모든 악에서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모두 함께 노래할 이들을 미구의 형벌에서 구해 주십시오.

알렐루야!

2013년 9월15일(주일)부터 약 10개월동안 본란에 연재해온 '올바른 성모신심'이 이번주일(2014년 7월6일)로서 끝을 맺었습니다. 오늘주일부터 한국천주교주교회의(CBCK)의 신앙교리위원회에서 편찬한 '올바른 성령 이해'를 연재합니다. 각자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성령 이해

성령과 색인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 주리라" (요엘 3,1).

성령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사람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과 함께하면 늘 생기가 돌아난다. "당신의 얼굴을 감추시면 그들은 소스라치고, 당신께서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갑니다. 당신의 숨을 내 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당신께서는 땅의 얼굴을 새롭게 하십니다." (시편 104,29-30)

인간은 죽을 운명을 지닌 혈육을 통해 태어나지만,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은총을 받는다. 성령께서는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모든 사람을 움직이시고, 세례성사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하시어, 하느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로마 8,15)로 부를 수 있게 해 주신다.

성령께서는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이들을 모으시어 하느님의 한가족, 곧 교회로 만드셔서 만민에게 빛이 되는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셨다.

하느님께서서는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 주리라." (요엘 3,1)고 약속하셨고, 때가 차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계속>

‘순’전히 어쩔 수 없이 ‘교’회와 하느님을 위해서 하는 것?

저는 1998년 7월 3일에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 5일에 첫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오늘로 어느덧 사제생활을 한 지 만 16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활을 고작 3년 하시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오늘 기념하는 우리나라의 첫 번째 사제이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겨우 6개월 사목하시다가 잡혀서, 1년 만에 돌아가신 것에 비하면 저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사제로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대건 신부님 축일이 되면 언젠가 청년 신자가 제게 했던 질문을 늘 자문하게 됩니다.

“신부님은 만일 박해 시대라면 순교하실 수 있으세요?”
청년은 제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한 짓궂은 질문이었지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당! 연! 히!!!”

그러자 청년이 의아하다는 듯 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금방 대답을 하실 수 있으세요?”

“사실 내가 순교하는 것은 오직 사회적 지위와 체면 때문이야. 신부가 배교를 하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

저 역시 우스갯소리처럼 했던 대답이었지만, 저는 아직도 순교할 자신이 없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유학자로 외국어와 학식이 뛰어났기에, 그들은 신부님을 배교하게 해서 관직을 주려고 했으나, 신부님은 고문 중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나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천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나의 소원이니, 오늘 묻고 내일 물어도 이 같을 뿐이요, 때리고 죽여도 역시 이 같을 뿐이니 빨리 때려죽여 달라.”

사실 지금은 박해시대가 아니라서 순교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참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박해시대보다 더 큰 배교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느님보다는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고, 봉사나 희생은 힘들어서 안하고 싶어 합니다. 신앙교육보다 학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현금이나 나눔은 아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정의로우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불의에 침묵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배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제인 저 역시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면 배교하는 것입니다. 불의에 침묵한다면 배교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과 가까이하지 않는다면 배교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슬픔을 겪는 이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배교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저보다 20살이나 어린, 25살의 나이에 오직 하느님을 위해서 7번 반만에 참수되신 김대건 신부님의 순교로 저는 정말 편한 사제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선배 신부님의 희생이 헛된 죽음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 지위와 체면 때문에 하는 어쩔 수 없는 순교가 아닌, 하느님을 향한 열정의 순교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목자이며 사제인 제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제게 맡겨진 양인 신자분들도 배교의 유혹을 끊어내고 하느님 사랑을 증거하면서 사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김지형 신부 / 삼성서울병원 원목사제

나의 평화가 위안이 될 때

울적할 땐 아이스크림 가게에 앉아 있곤 하는데 식당이나 커피숍보다 그곳에 있으면 마음이 순해지는 까닭입니다. 아이스크림을 고르며 싸우진 않으니깐, 아이스크림을 앞에 두고 심각한 이야길 하진 않으니깐.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온 사람들의 밝은 표정에 덩달아 마음이 환해져 돌아오곤 합니다.

◆이영 아녜스 / 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정광미 프란체스카	이진향 아녜스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김교복 레오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서용숙 에스텔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P.V. 2,4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신덕례 테레사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이민상 요한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이순자 비비안나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오늘 주일(6일, 매달 첫째 주일)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전 2차헌금이 있습니다.

†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경축 이동' †

오늘(7월6일)은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경축 이동'입니다. 한국 최초의 사제가 되어, 순교로 한국 교회의 기초를 놓고 모든 성직자의 수호자가 되어주신 김대건 신부님의 순교 신앙과 열정을 기억합니다.

“교우들 보아라. 내 죽는 것이 너희 육정과 영혼 대사에 어찌 거리낌이 없으랴. 그러나 천주께서 오래지 아니하여 너희에게 내게 비겨 더 확실한 목자를 삼 주실 것이니, 부디 설워 말고 큰 사랑을 이뤄 한몸같이 주를 섬기다가 사후에 한가지로 영원히 천주 대전에 만나 길이 누리기를 천만, 천만 바란다. 잘 있거라.”
- 성 김대건 사제 옥중서한에서 -

◆ 박상대 마르코 신부님 특강 안내

백삼위 본당 전임신부님이셨고 현재 부산교구 물운대 성당 주임이신 박상대 마르코 신부님께서 본당을 방문하셔서 특강을 해주십니다. 많이 참석하여 은혜로운 시간되십시오.

- 제1강 : 7월9일(수) 저녁미사후

주제 : 이시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 제2강 : 7월13일(주일) 오후1시

주제 : 성숙한 신앙인의 사명

☞ 박상대 신부님 환영 BBQ 파티 : 특강후 오후 5시 친교장, 본당 신부님께서 제공해주십니다. 많이들 참석하시어 만남의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한국외방선교회 감사미사 봉헌 및 후원회원의 밤

- 감사미사 : 7월19일(토) 특전미사, 20일(주일) 아침/낮미사
- 미사집전 : 한국외방선교회 김용재 안드레아 총장신부님
- 후원의 밤 : 7월20일(주일) 오후 5시 친교장
- 문의 : 백삼위본당 후원회장 이상철 크리스토퍼

☎(310)818-6903

◆ 자모회 주관 '자녀와 함께하는 공예교실'

- 기간 : 7월5일~8월23일(8주간) 매토요일 오후 2시~4시
- 장소 : 성당 1층 회의실 또는 교실
- 강사 : 유선영 클라라(준비물관계로 미리 신청바랍니다.)
- 문의 : 자모회장 한길선레 스킨스타티카☎(310)782-1025

◆ 본당 홈페이지(<http://www.103skcc.org/>)에

서식/양식 게시판 올림

- 신자분들의 많은 방문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직접 사무실에 오지 않으셔도 필요한 서식및 양식을 쉽게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메뉴 "정보광장" 에서 서식/양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문의 : 103skcc@gmail.com

◆ 124위 한국순교자 시복식 참가단 모집...서두르세요.

'교황님과 함께하는 124위 한국순교자 시복식과 한국성지순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참가단을 모집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에 비치된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 2014년 제27회 남가주 성령쇄신대회

- 주제 : "무엇을 찾느냐? 와서 보아라." (요한 1, 38-39)
- 일시 : 8월2일(토), 8월3일(주일), 장소 : 이스트LA 칼리지
- 강사 : 반병역 라파엘 신부(청주교구 감목매괴성모순례자성당), 임언기 안드레아 신부(텍사스 엘파소 성김대건한인성당), 차동엽 로베르트 신부(인천교구 미래사목연구소소장)
- 참가비 : \$25(본당구입시 \$20) ☎ (213)369-0173

◆ 본당 직원(사무장) 근무시간이 변경됩니다. - 7월1일부터 -

- 월요일 : 휴무
- 화,수,목,금,토 : 오전 9시30분~오전 11시30분
(점심시간 : 오전11시30분~오후 2시)
오후 2시~오후 7시
- 주일 : 오전 8시~오후 4시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7월6일(주일) : 독립기념일 연휴로 친교자리 없습니다.
- 7월13일(주일) : 토런스 동2,3반(소고기무국 \$3)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인모	구자운	금동균	금영도	김성택	김성현
	김원모	김윤진	김정희	김종문	김학겸	박종열
	반정인	배태임	서성용	윤화경	이경태	이병우
	이복임	이현주	장영진	정해영	조준제	채승희
	최태훈					
	합계 : \$4,090					
주일미사 헌금 : \$2,780						
성전헌금	강인모	구자운	금동균	금영도	김원모	김종문
	서성용	윤화경	이경태	이병우	이복임	이현주
	정해영	조준제	최태훈			
	합계 : \$1,660					
감사헌금 : \$100(한기찬)	주보광고후원 : \$250					

공지사항

◆ 본당 배론 청년회 신입회원 모집

주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 즐겁고 보람찬 성당활동을 같이할 회원을 모집합니다. 미사전례와 본당 행사에 참여하여 의미있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 대상 : 고등학교를 졸업한 새내기 대학생부터 누구나 다...
- 문의 : 이범주 다니엘 (310)988-8785

◆ 주일학교 찬양의 밤 행사(Praise Night)

- 일시 : 7월18일(금) 오후 6시 성당
- 참석대상 : 남가주 각성당 샌디에고 고등부 신앙대회 참가자 및 관심있는 주일학교 학생들.
- 어르신 교우들께서 많이 참석하시어 격려해주십시오.
- 문의: 김지훈 대견안드레아 고등부교리교사 (714)222-5511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8학년~12학년 * 일시 : 7월25일(금)~27일(주일)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그룹리더 ☎(310)709-3343

◆ 백삼위한국학교 교사 모집

-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문의 : 최 바르톨로메오 한국학교교장 ☎(213)700-9399

◆ 대학수능 SAT 한국어 준비반 백삼위 본당에서 교육

- 기간 : 6월21일(토)~8월2일(토), 한국어진흥재단 주관
- 공부시간 : 매주 토요일 오전 9시30분~낮 12시30분
- 수강료 : 무료(등록비 \$20와 교재비를 받습니다.)

“새 신자 환영합니다.”

남가주 소식

◆ 성 아그네스 성당 제24기 커피교육 안내

- 일시 : 7월13일(주일)~17일(목)
- 수강료 : \$200
- 교육방법 : 첫날 강의후 10회 실습
- 문의 : (323) 731-4433

◆ 특강 : 그리스도교, 윤리와 성. 생명윤리를 중심으로-

- 일시 : 7월27일(주일) 오후 1시~4시
- 강사 : 이인국 바오로(서강대교수, 생명윤리학박사)
- 장소 : LA 성 아그네스 성당
- 주관 : KCLC(미서부지역 한인그리스도인 생활공동체)
- 문의 : 양 요안나 ☎(909)518-4376

◆ KCLC 2박3일 영신수련 침묵 피정

- 일시 : 8월1일(금)~3일(주일)
- 지도 : 김영훈 신부(예수회)
- 장소 : Prince of Peace Abby
- 문의 : 하세실리아(323)578-2230
양요안나 (909)5184376

소공동체 7월 반모임

소공동체 부 장	김명제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욱 올리아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배태임 안나 781-9199 7/12(토) 오후 6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이근태 세르지오 999-5226 7/19(토) 12:30p 토런스파크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7/11(금) 오후 8시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강인모 테오도시오 780-3258 7/12(토) 오후 6시
	2	이호미 엘리사벳 991-8556	이명렬 라파엘 749-0276 7/12(토) 오후 6시
	3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우영희 엘리사벳 691-6087 7/13(주일) 오후 1시 성당
토런스 남 최옥희 테레사 508-2912	1	최옥희 테레사 508-2912	최옥희 테레사 7/19(토) 오후 7시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3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이정아 리디아 850-2822 7/13(주일) 오후 5시30분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욱 올리아 404-1607	정병욱 올리아 404-1607 7/20(주일) 오전9시 텔튼 파크
	2	1반과 같음	”
하버 카슨 권태만 실베스테르 989-9077	1/ 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7/12(토) 오후 7시
	3	1,2반과 같음	”
P. V. 남정희 베네딕타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7/12(토) 오전 11시 팍 아우회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배진영 프란치스코 793-6157 7/11(금) 오후 7시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7/12(토) 오전 10시 샌버나디노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이귀란 안네스 617-3568 7/19(토) 오전 라이언 파크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 / 반장 모임	오후 1시 강당
-------------	----------

다음주 단체모임

재단체 모임의날	
----------	--

우리는 지금 순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지난해 순교자성월의 마지막 주일, 본당에서 순교자현양 마당극 행사가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성당 내 아카페에서 도미니코 수도회 스페인 신부님과 차를 마시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부님께서 “참으로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예전에 그런 심한 고초까지 겪으면서 신앙을 지키고 순교하셨습니까? 정말 대단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지, 저 자신에게도 자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회사 일로 바쁘다, 개인적인 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신앙생활과 하느님은 가까이하지 않으면서, 주님께는 삶에 필요한 것만 요구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느 형제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형제님, 요즘에도 순교자가 있나요?” 박해시대, 목숨을 걸고 진리를 증명한 순교자들과 배교하고 목숨을 건진 사람들 모두 인간적 고통과 슬픔, 희망과 좌절을 겪었을 것입니다. 요즘은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린 이들보다 돈과 권력을 좇아 신념까지도 쉽게 바꾸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인 우리는 하느님께 대한 굳은 믿음을 바탕으로, 늘 하느님을 가까이하면서 경외심과 기쁨 속에 생활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성 김대건 사제 순교자 대축일입니다. 무릇 그분의 삶이 나의 신앙적 지침이 되고 우리 모두의 모델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행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도마 형제님께서 중국 소팔가자에서 있었던 김대건 신부님과 최양업 신부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곳은 두 신부님께서 신학공부를 마치고, 부제품을 받으셨던 곳입니다.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이 두만강 유역의 훈춘까지 한번 왕복하는데 두어 달 넘게 걸리는 탐색여행을 다섯 차례나 하고 돌아와 머물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덩치가 크고 누구에게나 말을 잘 걸며 활달했던 것으로 그곳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김대건 신부님에 관한 일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총각 처녀의 중매에 나서결혼을 성사시켰고 그들 후손이 번성했다는 이야기, 신학생을 키웠다는 이야기, 신부님이 계셨던 소팔가자 성당에서 신부님이 나왔을 뿐 아니라 주교님이 두 분이 나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은 하느님과 사람에 대한 신부님의 사랑이 절절히 마음에 다가오는 곳이구나.’

하며 뜨거운 기운이 가슴에 밀려왔습니다.

“교우들아 보아라! 부디 큰 사랑을 이루어 이 세상 평안히

살아가며, 이 다음 천주대전에서 영원히 만나기를 바라노라.”라고 한 김대건 신부님의 말씀을 빌려 다짐해 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오묘하게 사랑하시는지를….

◆김병각 베드로 / 경향신문 부장

전례 상식

사제가 입는 제의 색깔은 왜 종종 바뀌나요?

☞ 미사 때 사제의 제의 색깔이 전례시기와 미사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는 거행되는 전례의 특성과 전례력에 따라 그리스도인 생활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백색’은 영광, 결백, 기쁨을 뜻하므로, 부활과 성탄 축일, 성모 축일, 천사 축일 등에 입고, ‘홍색’은 사랑과 피를 상징하기에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주님 수난 성금요일, 성령강림 대축일, 주님의 수난 행사, 사도와 복음사가 축일, 순교자 축일 등에 입습니다. 그리고 ‘녹색’은 생명의 희망과 회망을 상징하므로 연중 주일과 연중시기의 평일에 입습니다. ‘자색’은 통회와 보속을 상징하므로 그 의미를 드러내는 대림시기, 사순시기에 입습니다.

◆정의철 신부 / 생활성서

‘가정 복음화의 해’를 맞아 본당에서는 혼인갱신식 참여를 강력히 권합니다. 하지만 성당에서 혼배미사를 올렸고 혼인신고도 마쳤는데 꼭 갱신식을 할 필요가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개인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짜도 아니고 속스럽고 민망스럽기만 합니다.

☞ 모든 사제는 매년 성 목요일 성유 축성 미사 때에 주교님과 교우들 앞에서 사제 서품식의 약속을 새로이 다짐합니다. 수도자들도 역시 일 년마다 수도자로서 하느님께 봉헌했던 서원을 새롭게 갱신합니다. 신자분들께서도 매년 부활절 전례 중에 세례 갱신 예식을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났던 마음을 더욱더 공고히 다집니다. 이렇듯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하는 신앙의 삶은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그분께 은총을 청함으로써 더욱 건강하고 튼튼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혼인갱신식이 갖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갱신식은 각 본당이 이 벤트처럼 행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주님께 성가정의 축복을 청하는 성스러운 예식입니다. 주님의 작은 교회인 가정이 혼인갱신 예식으로써 훨씬 돈독한 사랑의 공동체로 자라나기를 청하며 주님의 축복을 청하는 기쁨의 예식입니다. 주님께서 맺어주신 부부가 혼인성사의 의미를 되새겨 성가정을 본받아 살아가도록 돕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서로 주고받았던 사랑의 언약을 확인하는 아름다운 자리이니, 속스러움을 털고 기쁘게 순명하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성가정을 꾸릴 지혜가 선물될 줄 믿습니다.

◆장재봉 신부 / 부산교구 활천성당 주임